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양규현

“ 회원사 권익보호 위한 조합의 역량 확충 ”

1. 신년을맞아귀 단체의역할및 비전은무엇입니까?

우리조합에서는조합원사가필요로하는니-즈에대해 조사연구하고또한회원사의권익 보호를위한조합의역량을확충하는방안을다각도로모색할예정입니다.

조합원사의제품에대하여수요자의구매창출을극대화하기위한제품표준화및 우수EQ 제품인증활성화로조합의인증제품이면어느수요처에서도안심하고사용할수 있도록인증을정착화시켜나갈계획이며,

다양한전력기술의정보화를통하여전력설비제작, 기술개발에활용토록함은물론해외시장개척및 전시회에적극참여하여조합원판로확대를도모하고전력기술의선진화와시너지효과창출을도모할계획입니다.

2. 변화하는환경속에서전력산업의향후 과제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전력산업은새로운기회의요인을맞고있으며환경 · 에너지비용증가, 전력시장자율화, 디지털화하고있으며새로운기술이출현하고있습니다.

특히 무역상기술장벽(TBT)협정에따른 기술규제등의완화를주문하고있는 반면에안전, 환경기술기준은오히려강화되는추세입니다. 세계경제의통합진전에따라세계가하나의시장으로개편되면서하나의국제표준이적용되고있습니다.

기술혁신에도불구하고국제표준을선정하지못하는경우에는시장 지배력을확보하지못하고사장되는실정입니다. 표준차이로인한선진국과의무역마찰해소가필요합니다.

국내개발제품에대하여성적서를발행하여도정작수출하기위하여는해당국가의성적서를별도받아야하는문제로비용이발생하므로각국간에MLA(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통한상호인증시스템정착이필요하다고봅니다.

3. 각 산업간에영역이없는무한경쟁속에서, 이에대응해전기계기화합해서 전력산업을발전시킬전략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선진국들은WTO/TBT 협정체결로기술장벽을완화하도록추진하고있으며표준을시장확대수단으로적극활용하고있는반면자국의기술표준은강화하여후발국의

시장진입을억제하고있으며, 안전성확보를위한기술규격및 시험기준등을강화하여자국의이익을보호하고 있는실정입니다.

현재 대다수중소중전기업체들은기준표준화에대한인식이부족하므로전력산업분야에대한기술표준전문가를양성하여지원할수 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중소중전기제조업체들이비하기힘든고가의시험설비등을쉽게활용할수 있고시험료도대폭인하하여지원할수 있는방안들을강구하여야할것이며, 그리고향후 남북전력기술표준협력, 전산업분야의표준인프라구축등 필요성을찾아국내에서대비해야할것은사전에 대비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 한전등 국내수요기관에서중소기업제품에대해 우수한기술이나제품에대하여는해외에진출하여수출할수 있는기회를확대하여적극지원함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며, 현재여러전기관련단체가구성되어 있는데이러한각 단체의실무자또는전문가들의협의체를구성하여정기적인모임을통하여유기적인정보교환이필요하다고봅니다.

4. 전력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 전기협회가해야 할 일과 회원서비스를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어떤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우선은수시로변화하는국제적인규격을국내전력산업규격에적용하여활용할수 있도록하고 남북한간에 필요로하는전력표준을새우는것도필요할것이라고봅니다.

전력산업분야는신기술개발의속도가느리고LIFE CYCLE도 길어국제표준으로채택되기까지장기간소요되므로우리실정에맞는표준화정착으로나아가야할것이며, 또한IT기술개발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여진일보한IT 기반구축을해나가도록노력해야할 것으로보이며,

또한전력산업분야및 전력기기분야의제반실태에대한 통계가확립되어있지않은실정이므로전기협회가전반적인통계체제를확립하여각종지표와통계자료를산출하여전력산업분야의연구및 정책개발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 있도록해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